

'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 마약밀수, 관세청이 한발 앞서 차단한다 -

- 관세청장이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 직접 주재, 마약대책 추진상황 점검
- 여행자·특송·우편 등 모든 밀반입 경로의 전방위 단속 강화 지시

관세청은 4월 6일(월, 16:00)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수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청장 직속의 마약단속 지휘 본부로,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매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관 현장의 통관·감시·수사과장들이 참석하여 1/4분기 마약단속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2월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중 여행자·특송·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26년 4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요 >

- [시간/장소] '26. 4. 6.(월) 16:30 ~ 17:20 / 정부대전청사 6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본청 13명(청장, 차장, 통관국장, 조사국장, 정보기획담당관 등) 및 세관 조사·통관 부서장 10명 등, 총 23명
- [주요내용] ① 1/4분기 마약단속 동향 공유
② 여행자·특송·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현황과 향후 계획

1.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관세청은 20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 중량은 5% 감소했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경로는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건이 증가*하며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는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송화물 경로는 건수는 감소했으나 중량은 소폭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집중되었던 마약밀수 경로가 다시 여행자 분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24) 20건, 86kg → ('25) 23건, 135kg → ('26.3월) 7건, 32kg (동기 대비 건수 40%, 중량 73% ↑)

품목별로 살펴보면 캐나다발 특송화물 24kg, 태국발 여행자 16kg('26.2월) 등 대형 필로폰 마약밀수 적발이 전체 중량의 증가로 이어졌고, 2024년 이후 적발 실적이 없었던 자가소비용 헤로인이 국내 체류 외국인(영국인)의 국제우편에서 적발되는 등 마약 종류 다변화 가능성도 감지됐다.

출발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륙별로는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유럽 순으로, 국가별로는 태국, 캐나다, 베트남, 미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발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4kg, 에티오피아발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3kg 적발 등의 영향으로 유럽보다 적발량이 많아졌다.

또한 베트남은 그간 대표적인 태국발 적발 마약류였던 야바 24kg이 특송화물에서 적발되는 등 베트남을 경유한 우회 밀반입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현황과 향후 계획

이번 회의에서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여행자 분야에서는 전국의 마약전담 검사대 등에서 마약 우범자 집중검사로 총 178건, 64kg을 적발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128%, 중량은 78% 증가하였고, Landing 125*를 통해 코카인 2kg를 적발하기도 했다.

* 우범항공편이 착륙하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세관이 여행자의 신변과 기내수하물을 일제검사

마약전담 검사대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의 보완 의견을 반영한 뒤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만 실시 중인 Landing 125도 7월부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시행하여 마약 밀반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특송화물 분야에서는 우범국발 화물의 집중판독제를 운영 중이며, 100% 엑스선(X-Ray) 검사와 함께 마약 탐지견 교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범국발 전담 엑스선(X-Ray) 검사 구역을 지정하여 고경력자 위주로 배치하고, 충분한 판독 시간을 확보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다. 향후 판독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특송화물에 대해 7초 이상 판독 시간을 확보하고 우범화물 검사 비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제우편 분야에서는 공항만의 국제우편 물류센터에서만 검사하던 기존 검사 체계에 더하여 내륙의 주요 물류 거점인 5개의 우편집중국*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전담검사 구역 추가, 최첨단 검사 시설·장비 보강 등 운영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동서울(12.29.부터 시범운영), 부천.안양.부산 우편집중국, 중부권 광역 우편물류센터('26.4월~)

** 공항만에서 1차 검사한 우편물이 내륙 거점의 우편집중국 도착 시 재차 정밀한 세관검사 실시

3. 운영 방향

앞으로도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매주 마약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마약단속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상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국경 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세관 직원들에게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국경에서 한발 앞서 마약을 차단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단순한 단속기관을 넘어 국민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적발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한 통제배달로 이어지는 마약 수사의 강점을 보유한 만큼, 사법개혁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마약밀수 신고* 등 마약범죄 근절에 동참할 것을 부탁했다.

* 전화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5 / 인터넷 신고 : 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신고하기

붙임.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통계

담당 부서	관세청 국제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나애 (042-481-7740)
		담당자	사무관	박지원 (042-481-7702)



1. 총괄

(단위: 건, g)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3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총괄	771	624,451	704	769,363	862	787,199	1,256	3,317,705	302	180,018	13	△5

2. 밀수경로별

(단위: 건, g)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3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항공여행자	112	36,155	177	148,099	198	139,687	623	279,455	178	64,039	128	78
해상여행자	0	0	0	0	1	81	1	106	0	0	-	-
국제우편	460	361,286	329	327,307	420	189,930	318	156,813	70	16,221	△26	△70
특송화물	197	225,776	193	274,681	235	391,774	306	273,479	51	99,594	△45	5
기타*	2	1,234	5	19,276	8	65,727	8	2,607,852	3	164	200	△97
합계	771	624,451	704	769,363	862	787,199	1,256	3,317,705	302	180,018	13	△5

* 수출입화물, 무역선, 공(空)컨테이너, 선원, 이사화물, 반입경로 미상 등

3. 품목별

(단위: 건, g)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3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필로폰	120	261,888	155	437,662	153	492,533	114	312,766	25	123,901	△44	46
코카인	8	152	17	11,343	7	67,600	10	2,602,489	1	2,008	△50	△57
헤로인	1	5	2	1,362	0	0	0	0	1	8	순증	순증
대마	284	93,093	212	143,442	221	53,481	338	117,748	107	9,415	49	△69
신종마약*	480	266,758	430	171,621	515	167,495	752	269,839	170	31,632	△3	△51
기타**	12	2,555	39	3,933	146	6,090	244	14,863	47	13,054	15	131
합계***	905	624,451	855	769,363	1,042	787,199	1,458	3,317,705	351	180,018	4	△5

* (신종마약)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통계상 신종마약류로 관리

** (기타) 코데인, 모르핀,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디페녹실레이트 등

*** 1사건에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사건이 있으므로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일부 상이

4. 대륙별 및 상위 10개국 적출국별

4-1. 대륙별

(단위: 건, g)

구분	2024년		2025년		2026.3월누계		전년동기대비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아시아	489	473,678	622	289,267	121	114,125	△16	15
북미	203	163,150	441	219,882	133	48,355	75	△2
아프리카	6	15,094	5	21,520	5	8,982	400	126
유럽	147	83,486	147	166,558	34	8,349	△19	△75
중남미	7	35,147	14	2,605,348	3	40	△25	△99
오세아니아	11	956	12	476	4	44	33	389
중동	5	9,718	1	78	0	0	-	-
불상	8	5,970	29	14,576	3	123	200	846
합계*	876	787,199	1,271	3,317,705	303	180,018	12	△5

* 1사건에 출발 대륙이 2개 이상인 사건이 있으므로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일부 상이

4-2. 상위 10개국 적출국별

(단위: 건, g)

구분	'24년			'25년			'26.3월 누계		
	국가	건수	중량	국가	건수	중량	국가	건수	중량
1	태국	138	359,308	태국	118	151,693	태국	27	54,583
2	미국	181	120,051	미국	409	131,274	캐나다	18	28,642
3	캐나다	24	43,444	캐나다	32	88,443	베트남	29	25,300
4	독일	44	34,551	프랑스	21	70,609	미국	115	19,713
5	멕시코	2	28,929	영국	31	45,097	일본	13	13,240
6	말레이시아	14	25,697	베트남	151	38,591	캄보디아	5	6,520
7	베트남	142	24,704	독일	47	33,510	말레이시아	3	5,003
8	네덜란드	32	22,333	캄보디아	23	23,668	네덜란드	9	4,745
9	캄보디아	18	16,117	말레이시아	12	19,057	남아공	3	3,986
10	영국	25	14,627	남아공	4	15,791	에티오피아	1	2,987
11	기타국*	261	97,438	기타국*	430	2,699,972**	기타국*	83	15,299
	합계***	881	787,199	합계***	1,278	3,317,705	합계***	306	180,018

* (기타국) 연도별 상위 10개국을 제외한 국가

** '25년 페루發 코카인 1,690kg('25.4월), 에콰도르發 코카인 600kg('25.5월), 300kg('25.8월)은 특이치로 국가별 순위에서 기타국으로 제외

*** 1사건에 적출국이 2개 이상인 사건이 있으므로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일부 상이